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3일 월요일 음 7월 24일 (1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구름 많겠으며 산지는 흐리겠다. 당분간 육상과 해상에는 짙은 안개나 박무(열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2 columns: Day (오전, 오후) and Location (제주, 성산, 고산, 서귀포) with precipitation percentages.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 물때) and Location (달림, 간조) with times.

주간예보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Location (구름 많고 비, 구름 많음) with temperatures.

생활·안전 기상정보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and Status (높음, 위험).

월드뉴스

존 매케인 장례식 초대 못받은 트럼프

폭풍 트위터 후 골프장 직행

미국 보수 진영의 '큰 별' 고(故)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장례식이 열린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과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트위터를 쏟아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 장례식

런 더소비츠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코멘트를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케인 의원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프타 개정 협상과 관련해 캐나다에 경고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추모사에 나선 매케인의 딸 메건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빼앗는 말을 쏟아냈다. 메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을 겨냥한 듯 "미국은 항상 위대했다"면서 "존 매케인의 아메리카"는 다시 위대해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백록담



문 미속 제2사회부장·서귀포지사장

가을이 시작된다. 9월의 첫 날 오후 서귀포시 지역에 시간당 120.7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제주 기상관측 사상 시간당 최고 강수량이다. 2시간 남짓 사이에 2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도심 곳곳의 도로가 침수돼 일부 구간에선 달린 차량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날 기상청은 오후 1시 50분 남부인 서귀포시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

일상이 된 기상재해... 정확한 예보가 목마르다

를 호우경보로 대체 발표하면서 2일 오전까지 해안은 30~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내린 비는 예보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리고 4시 25분 호우경보를 해제하면서 2일 오전까지 30~80mm, 많게는 120mm의 비를 예보했으나 2일 오후 3시까지 해안에는 지역별로 0~7.5mm, 산간에는 0.5~12.0mm의 강수량에 그쳤다.

지난달 23일 태풍 '솔릭' 역시 기상청 예보와는 달리 시속 4~7km의 느린 속도로 북상, 제주 서쪽 해상에서 하루 가까이 머물며 서귀포시 곳곳에 생체기를 남겼다. 그래서 '기상청의 차장의 침수 신고도 서귀포시와 소방서에 이어졌다. 한 달 넘게 이어지던 폭염과 열대야를 식혀주리라 기대하던 비가 삼시간에 기상재해로 돌변한 꼴이었다.

에는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천장에서 바람을 내뿜는 송풍기가 돌아가고, 대형 얼음이 비치되기까지 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몰고온 이색 풍경들이었다. 어디 그 뿐인가? 폭염에 더해진 가뭄에 농민들은 8월 내내 물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이렇듯 변화무쌍한 기상재해가 잦아질수록 국민의 안전은 더 위협받게 되고, 정확한 예보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나름 발맞추어 예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만 '오보'라는 비판에 직면할 적마다 기상청도 속을 끓이겠지만, 정확한 예보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그만큼 날씨가 우리네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는 일본 기상청이나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도 태풍의 이동경로를 두고 자주 말을 바꾸고, 예측이 종종 빗나간다. 그만큼 태풍 경로는 변수가 많아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도 정확한 진로를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그런데 태풍이 발생하면 해외

기상청이나 기상협회, 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는 이들도 적잖다고 한다. 행정에서는 태풍 내습시 비상근무하면서 공유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기상청과 일본, 미국기상청의 예상 진로를 동시에 올린다.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인만큼 여러 이동경로를 염두에 두고 잘 대비하자는 뜻이 더 크겠지만 우리 기상청의 예보에 대한 신뢰도도 일정부분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다.

재난 대비는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한 법이다. 기상청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상예보를 요구받는 이유다. 그리고 정확한 기상예보와 함께 중요한 게 여럿이다. 잦은 기상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배수개선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의 강우빈도 설계도 수십년에 한번 내리는 비를 건디는 수준이 아닌 예측불허의 기상이 변을 감안해 보다 기준을 강화하는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열린마당

비브리오 패혈증을 아시나요?



고 은혜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된 올해 여름 이상 기온이 바다에도 영향을 주면서 어패류를 덜 익혀 먹으면 발생할 수 있는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수생균인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생명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염병임에도 지난날 24일을 기준으로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26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예년의 1.7배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3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 2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균에 오염된 해수에 피부상처가 노출된 경우나 조개를 날로 또는 덜 익혀먹으면 감염이 된다. 특히 평소 간기능이 좋지 않거나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이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도 어패류를 잘못 먹으면 감염될 수 있다.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비브리오 패혈증을 예방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째, 조개 등 어패류는 생식을 금하고 85℃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 둘째, 어패류를 손질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야 한다. 셋째, 해산물을 익힌 다음 바로 먹고, 남김 경우 반드시 냉장보관을 해야 한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엔 손이나 발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 부위에 바닷물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식재료를 다룰 땐 올바른 조리법과 식습관을 지켜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고 영범 제주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119센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기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농기계 안전사고로 사망 6명, 부상 321명 등 총 3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농기계 사고의 특징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고발생 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게 된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마늘, 감자 등 농작물의 파종으로 분주한 시기이다. 안전한 농번기를 위한 농기계 안전(예방)수칙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

보를 타인에게 제공한다. 방향지시등, 후미등, 야간 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하고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 운전자의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동승자를 태우지 않는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 확보, 레버조작 등을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고 급정지·급회전 시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다.

셋째, 작업에 맞는 복장과 안전장비 착용이다. 농기계는 거친 작업환경에서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적이고 소매가 긴 옷이나 헐렁한 하의는 농기계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신체에 맞는 간편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농기계 사고는 조작이 미숙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는다. 자신이 숙련자라고 생각되거나 항상 안전수칙 준수 및 사고 주의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고 했다. 농기계 사용에 있어서는 시기,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숙달해 농민 모두가 근심 없는 농번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강만생 편집국장 김기현.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락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대표 임장완. 743-7175

벨톤보청기 제주점. 신규 오픈 기념 행사.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지원. 난청 전문상담. 보상판매, 보청기 무료체험. 신제품 1+1 특가, 전품목 할인. 1개월 착용 해보고 결정하세요! 725-2544

(주)제주시시스템비계 (주)한진철거. 시스템비계 (클린사업) 등록업체. [소규모현장 시스템비계설치시 정부지원]. 시스템비계 임대(판매). 안전 발판 임대(판매). 정확한 설계. 안전시공. 비계 공사 전문건설업. 철거 공사 전문건설업. 석면 해체, 제거업. 722-0407, 724-1420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사용 및 후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064) 724-7575